





영했고, 부산MBC는 황강 물이 ‘낙동강은 물론 남강보다도 수질이 좋’고, ‘부산시민의 30년 숙원이 해결될 단초를 마련’했다며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취수원 다변화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부산일보는 작년 프랑스 파리 상수도 사업본부의 사례를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취수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체 취수원에서 물을 확보해 공급할 수 있어야 함을 설득한 바 있습니다. < [ ]부산 ‘물 차별’ 더는 안된다(5) 취수원 다변화의 힘-파리>(2019.7.8.)

그런데 새로운 취수원 확보 노력 외에 낙동강 본류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낙동강은 보를 개방해서 물을 흐르게만 해도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다면서 보 개방이라는 결정적 해결책을 빼놓은 중간보고서는 ‘알맹이 없는 껍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남지역 시·도지사들 역시 보 개방 문제는 외면하면서 낙동강 물관리 사업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 시켜 달라고 나선다며 토목사업이라는 ‘젓밥’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형국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일보와 부산MBC 보도에는 그동안 보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농업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라는 정도로 간략하게만 언급됐습니다.

국제신문과 KNN은 환경단체와 낙동강 유역 농민의 입장을 좀 더 무게 있게 다뤘습니다. 통합물관리 방안의 실행까지가 순탄치 않을 거라며 반대 목소리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 <낙동강 통합물관리, 시작부터 파행> 8월 6일 1면)



▲KNN <뉴스아이> (8월 5일)

## 낙동강 통합물관리, 시작부터 파행

장흥서 열려던 용역보고회  
추진-환경단체 반발로 무산  
환경부 "추후 큰어린 계획"  
영남권 5곳 지자체장 만나  
낙동강 유역 상황설명 열마



2018년 대구광역시 대동강 1000여개 사업... (text continues)

환경부가 5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열려던 용역보고회... (text continues)

환경부는 5일 오후 2시에 장흥에서 열려던 용역보고회... (text continues)

환경부는 5일 오후 2시에 장흥에서 열려던 용역보고회... (text continues)

환경부는 5일 오후 2시에 장흥에서 열려던 용역보고회... (text continues)

환경부는 5일 오후 2시에 장흥에서 열려던 용역보고회... (text continues)

## 혁신도시 정책 15년 인구분산 효과 있었다

국토연구원 성과·편차 보고서  
'10개 혁신도시로의 기존 이월이  
수도-비수도권 인구역분산 효과'  
분류기준 추가 이뤄 될 것임

국토연구원 성과·편차 보고서... (text continues)

▲국제신문 8월 6일 1면

## 30년 갈등 반복... 취수지 지원법·기금 등 대타협 카드 절실

낙동강 통합물관리 재법문  
농업용수 고갈-규제강화 이유로  
합천-장성지역 반발 여론 커져  
주민 실직할 실정 보강책이 관건  
환경단체 요구한 보수-문명  
유역보고서서 수질 개선안서 백제  
부상식 등 관련 입법 표명해야



합천이 호구냐! 취수장 철회... (text continues)

25일 예행연습을 마친 낙동강 유역... (text continues)

환경부 장관은 5일 오후 2시에 장흥... (text continues)

## 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text continues)

## 부울경 물 해법, 잠룡 김경수-김태호 재부상 시험대

▲국제신문 8월 6일 3면



잠룡 김경수-김태호 재부상 시험대

## 녹장 행정 비판하는 목소리는 속 빠졌다 지자체, 그린뉴딜 토목사업에 눈먼 건 아닌지 감시해야

PD수첩은 앞서 <4대강에는 ‘꿈수’가 산다>(7.21.방송 MBC)에서 보 개방을 포함한 낙동강 복원이 늦어지는 것이 환경부와 지자체장들의 의지 부족, 지역민 눈치 보기, 치적 사업 이권 챙기기 때문이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복원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으로 포장을 받은 국토부 공무원이 현재 환경부에서 물환경 정책과 중책을 맡았고, 조사평가단이 제출한 보 처리방안도 결정 책임을 미루며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행여나 ‘여론을 살핀다며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4대강 복원을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4대강에는 ‘꿈수’가 산다>-후반부-PD수첩 \(7.21. 방송 MBC\)](#)

환경부는 여론을 더 수렴한 이후, 다음 달 최종보고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언론은 행정 당국이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겁니다. 지자체가 국책 사업을 유치했다며 홍보할 때 지역언론이 편승해 토목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기보다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끈질기게 감시해주길 바랍니다.